2008 - 2009
캐나다 한인여성회
연례보고서
Annual Report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회장과 사무장 보고

유상희 회장, 하영리 사무장

2008년도는 글로벌 경제악화의 시작으로 인하여 우리사회가 전례 없이 다사다난했다. 글로벌 경제악화의 영향으로 동포사회의 경제 침체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것을 잘 표현해주는 지표로써 정부 재정 지원 신청자가 급증 했고 비영리 단체들도 정부지원의 동결과 삭감에 대한 뉴스를 염려스럽게 지켜보아야했다.

이런 어려운 외부요소에서도 캐나다 한인 여성회는 잘 견디어 냈다. 물론 재정적 도전이 바로 눈앞에 있지만, 그래도 여성회는 그 동안 재정지원을 받아왔던 정부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모두 승인 받았고 더 나아가서 기관의 조직기반을 더 튼튼히 하는 재정지원도 추가로 받았다. 그 결과, 적어도 그 동안 제공해왔던 모든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기관의 재정지원의 확보와 이외에도, 올해 "아리랑" 기금마련행사에 400여명의 후원자들이 참석하는 놀랄만한 성과도 이루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동포들이 보여준 지지는 여성회가 동포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꾸준히 받고 있는 기관인 것을 드러내는 의미 있는 증거였다. 어려운 때에 보여준 동포들의 압도적인 참여와 관대함은 여성회 이사진과 직원들을 더욱 겸손하게 했고 더 열심히 노력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했다. 동포사회의 격려에 많은 감사를 드린다.

2009년, 외부적으로 어렵지만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여성회는 25주년 기념해를 향하여 나아간다. 놀만 빈센트 필 박사의 말대로 우리는 "가능주의자" 가 되어야 한다. 불확실에 대한 두려움과 실제로 부딪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시야를 높여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보려고 노력하면서 나아갈 것이다.

25주년 기념해를 시작하면서 오늘날 동포사회에서의 여성회의 역할과 목적 그리고 내일의 여성회의 가능성을 다같이 마음에 되새겨 보며 앞으로 1년동안 진행될 다양한 25주년 기념행사에 지속적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임 무

캐나다 한인 여성회는 1985년에 여성과 가족문제에 관심을 가진 여성들에 의하여 발족된 비영리 봉사단체입니다. 캐나다 한인 여성회의 목표는 문화와 언어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통해 한국계 이민자와 지역사회 전반의 소외된 사람들이 폭력, 빈곤, 불평등에서 벗어나 성공적으로 캐나다 사회에 통합, 정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돕는것입니다.

목 차

회장과 사무장 보고 1

정착서비스 2

사회복지 서비스
자원봉사 프로그램 3

가정 서비스 4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키우기 프로젝트
유방암 예방
프로젝트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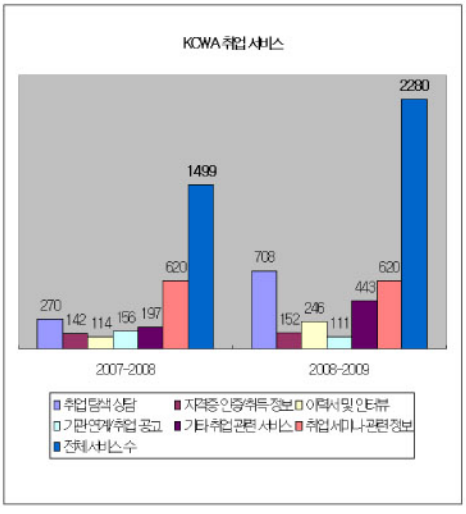
여성회 홍보 활동
재정감사 보고 6

캐나다 한인여성회

27 Madison Avenue,
Toronto, Ontario M5R 2S2
Phone: 416-340-1234
Fax: 416-340-8114
E-mailL kcwa@kcwa.net
Web: www.kcwa.net

정착/취업 관련 서비스

서 비 스		숫 자
정착	사회복지 서비스	1,912
	건강 서비스	902
	이민 및 시민권	4,829
	법률정보	954
	학교 정착	842
	그 외 정착관련 서비스	4,867
	정착 세미나 및 프로그램	2,405
취업	취업 탐색 상담	708
	자격증 인증 및 취득정보	152
	이력서 및 인터뷰	246
	취업 기관 연계/ 취업 정보 공고	111
	기타 취업 관련 서비스	443
	취업 세미나 관련 정보	620
통 역		617
합 계		**19,608**



캐나다 이민성의 2007년 통계에 의하면 이민국가별 통계는 한국인 이민자 수가 8위로 5,864명이고, 캐나다 전체 이민자 수 중 온타리오에 거주하는 이민자 수는 47%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 많은 이민자들이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 율이 높은점을 감안할 때 GTA 거주 새 한인 이민가정의 한인여성회 정착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한인여성회는 새이민자 프로그램 (NSP: Newcomer Settlement Program)과 이민자 정착과 적응 프로그램 (ISAP: Immigrant Settlement and Adaptation Program) 에 의한 정착서비스의 확대로 커뮤니티에서의 서비스 요청이 증가하고있다. 증가하는 서비스에 부응하고자 회기년도 기간동안 이민 전- 이민- 이민 후의 사후관리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한인 이민가정의 성공적인 정착과 캐나다 사회로의 빠른 통합을 도모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다양한 채널의 커뮤니티 미디어, 기관, 단체 들로부터의 협력적인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정착서비스 홍보가 이루어졌고 토론토 다운타운에 위치해 있는 한인여성회 사무실에서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한국어 서비스 정착기관이 없는 GTA에 거주하는 한인이민가정을 위한 정기 순회서비스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장거리전화 또는 이메일 상담으로 GTA 이외의 캐나다 전역의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의 정착서비스 요청에도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민 전 서비스를 위하여 여성회의 웹사이트를 통한 정착정보 제공과 아울러 한국내 이민 전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연계 서비스를 통하여 신속한 정착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용자와 커뮤니티로 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또한 한인여성회가 제공하고있는 모든 서비스는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필요등을 파악하면서 커뮤니티 요구조사와 서비스 평가, 프로그램 평가에 의하여 동포사회가 필요로하는 서비스를 보완하는 가운데 새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정착 오리엔테이션,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ESL, 사회복지 혜택 정보, 교육, 레크레이션/ 문화/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생활필수 정보에 대한 관련 세미나와 프로그램들이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공되어 새 이민가정의 정착도모에 큰 힘이 되었다.

2008년에서 2009년으로 이어진 지난 1년은 전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커뮤니티 구성원 모두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한 해였다. 최근 미디어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CBC The Nationals) 불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일거리가 지속되는 직종 다섯 중 하나가 Social Worker (사회 복지 상담원)라고 한다. 나머지 네 직종은 의료계, 회계분야, 컴퓨터관련업, 공무원. 불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사회 구성원이 더 늘어났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한인여성회가 지난 1년간 제공한 취업 서비스의 통계를 보면 이런 점들이 더욱 확실해 진다. 아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적인 상담 서비스의 수가 2007-2008년보다 약 52% 늘어났으며 특히 취업탐색 상담과 이력서 및 인터뷰 상담은 전 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새로 이민온 분들의 상담도 예전과 변함없이 꾸준했지만 이미 취업을 했던 분들 중 최근 불황으로 인해 해직을 당했고 재취업을 위해 상담을 요청한 분들이 많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실직 여파는 2008년 후반기부터 본격화 되었는데 2009년 초에 들어서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기가 파장을 거듭하면서 실직으로 인한 취업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의 수도 급증한 현상이다. 한인여성회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다양한 취업 정보의 제공과 세미나를 진행해 왔다. 그 중 하나가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그와 연계된 정부 제공 서비스를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알리는 일이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세미나, 개별 상담등을 통해 꾸준하게 그분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새로운 취업을 위해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정보세미나도 많은 분들의 관심속에 진행되어 왔다. 그 중 하나가 공립 컬리지에 대한 입학 및 프로그램 정보 세미나였다. 신규이민자들에게는 이민 초기 취업에 대한 막막함을 캐나다 교육을 통한 장기적인 투자로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는 정부의 보조를 통해서 재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컬리지 교육은 많은 한인 이민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하지만 캐나다의 교육제도에 대한 낯설음과 자신감의 결여가 아직까지 많은 이민자들의 발목을 잡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한인여성회에서 주최한 컬리지 세미나는 정확한 정보와 실질적인 경험담의 전달로 이런 자신감의 결여를 상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된다. 한인여성회 취업서비스는 수동적이고 전형적인 단순한 정보의 제공을 벗어나서 한인 이민자들이 막연하게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지만 구체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 쟁점들을 찾아내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 복지 서비스

캐나다의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민가정에 도움이 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언어장벽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인 여성회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상실감과 소외감을 겪고있는 가운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가정을 위하여 한국어로 다양한 복지혜택 상담과 정보 세미나를 개최하여 각 개인과 가정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그 결과로 특별히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보조 주택, 약값 보조비 프로그램, 온타리오 사회복지 혜택, 장애연금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였으며, 이민으로 인한 캐나다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언어장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계속적인 통역서비스도 제공하였다.

내 용	숫 자
사회복지 서비스: OAS, GIS, CPP, ODSP, OW, ODB, Trillium DB, Social Housing CCTB, CCSWF, CCS, Other	435
건강 서비스: Long Term Care, Retirement Homes, Healthcare Referrals, OHIP Information, Other	38
이민 & 시민권: PR Card, Citizenship, Passport, Visa, Other	21
법률 서비스: Rent, Tenancy Issues, Employment Issues, ESA, EI, WSIB, Consumer Issues, Small Claims Court, Legal Aid, Community Legal Clinics, Other	50
기타 서비스: Name Change, Marriage/Death Certificates, Drivers License, Tax related Information, SIN Card, Other	88
통역 서비스	87
합 계	**719**

자원봉사 프로그램

자원봉사프로그램은 한인 이민자들이 자신이 소속해 있는 커뮤니티에 자원봉사를 통한 직접적인 참여를 하므로써 이민으로 인한 새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빠른정착을 유도하면서 주인의식을 가짐으로 캐네디언 사회에 효과적으로 통합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정기적인 자원봉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고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자원봉사의 의미와 책임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를 갖게되었다.

자원봉사활동은 캐나다 주류기관과의 연계활동으로 캐나다 사회복지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개인, 가족, 그룹 자원봉사자들이 가질 수 있었으며, 이러한 활동으로 참여자들에게는 기쁨과 보람, 주류사회에서는 한인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근면, 성실, 책임감과 헌신이 높이 평가되는 계기가 되었다. 주류사회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은 연계기관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계기로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신의 거주지역의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므로 캐나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도를 증진하여 적극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은 커뮤니티의 다양한 경험을 갖고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여성회의 정착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업무지원, 기금모금 행사에서의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가운데 더불어사는 한인 커뮤니티 형성을 격려하였다.

자 원 봉 사	참석자 수
주류사회기관 (개인/가족/그룹) 자원봉사	510
프로그램 자원봉사	340
사무실 자원봉사	115
기금모금 자원봉사	38
합 계	**1,003**

여성회 이사

(2008 4월 1일~2009년 3월 31일)

- 회장: 유상희
- 부회장: 신복실, 안주영
- 회계: 최성학
- 서기: 문희배
- 총무 위원장: 윤보인
- 사업 위원장: 박상희
- 회원 위원장: 최경애
- 섭외 위원장: 신복실, 안주영
- 재정 위원장: 최성학

이사

정제인

신순자

안귀란

국은화

박샤론

이 스티븐

박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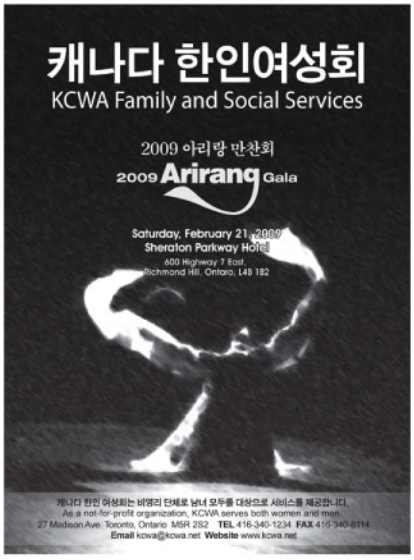
이현선

직원

- 사무장: 하영리
- 프로그램 매니저/
  정착 코디네이터: 강영옥
- 가정 상담원: 김광숙, 임길순
- 취업 상담원: 오병천
- 정착 상담원:
  심수영, 이진영, 박정민
-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김민경, 류윤상, 이은경
- 행정업무: 이은경

기금모금 행사

- 일자: 2009년 2월 21일
- 장소: Sheraton Parkway Hotel 600 Highway 7 East Richmond Hill, Ontario
- 수입총액: $59,330.00 (Including Expenses)



재정지원기관

- 연방이민성
- 온타리오주정부 지역사회 복지부
- 온타리오주정부 검찰청
- 연방 인적자원 개발성
- 온타리오주정부 이민부
- 토론토 시정부
- 온타리오 트릴리움 재단
- 캐나다 유방암 재단
- 재외동포 재단
- TD Financial Group

가정상담 프로그램

한인 여성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가정상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이다. 모든 이민가정이 경험하게 되는 낯선 환경과 이로인한 스트레스는 때로 예상치 못했던 문제와 가족간의 갈등을 유발시킨다. 한인 여성회는 한인 동포들이 이러한 갈등과 문제들을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한인여성회는 예방, 개입 및 후속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한인 사회에서 견고하고도 건실한 평판을 얻어가고 있다.

예방 서비스로는 건강한 마음가꾸기, 행복한 가정만들기라는 커다란 주제 아래 자존감 향상, 스트레스 관리, 분노 조절, 대화법, 행복한 결혼생활 및 건강한 식습관에 관한 프로그램과 캐나다 가정법 알기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가정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들의 모임을 매 월 주관하여 자녀들의 진로지도뿐아니라 문제들까지도 함께 나누고,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효과적인 자녀양육법을 익히도록 하였다.

개입 서비스로는 과도기 및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쉘터, 정부아파트, 웰페어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 법률정보 및 통역/번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부족과 제한된 언어능력으로 인해 서비스의 이용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으며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지속적인 개인 상담과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도록 도왔다.

후속 서비스로는 셀프헬프 그룹모임을 들 수 있다. 어려움을 겪었던 여성들이 매월 1회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서로를 격려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정신적,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아래의 도표는 2008년 한 해동안 행해진 서비스의 내용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서비스 제공횟수는 작년에 비해 약 18% 증가했다. 모두 53명의 남성들이 가정 서비스를 제공받아 전년 대비 100%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여성회가 더이상 여성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 한인 사회에 잘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인여성회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분들께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함으로써 한인여성회 본연의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였다.

자원봉사	상담건수
서비스 이용자	860
가정폭력 관계 서비스	864
가정 문제 (이혼 및 가정법 정보)	268
사회복지	1,532
교 육	132
보 건	245
법률 정보 (Legal Aid)	519
이민, 난민 및 시민권 관련	406
단기 상담	265
장기 상담	141
여성회 프로그램	122
통역 및 번역	1,346
예방 프로그램	175
합계	**6,015**

성(性)적으로 건강한 자녀키우기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키우기' 프로젝트는 온타리오 트릴리움재단의 재정 지원으로 실시하였으며 2009년 세번째 동료부모지도자 졸업식을 노스욕 시빅센터(5100 Yonge Street) 에서 가졌다. 프로젝트는 세번째 해에 7개 소수민족(벵갈어, 중국어, 한국어, 포르투칼어, 스페인어, 타밀어, 베트남어 커뮤니티)으로 부터 동료지도자 106명이 가정 성교육을 위한 훈련을 받았으며, 훈련 후 동료지도자들은 자신의 커뮤니티에서 부모워크숍을 하고 수료를 하게 되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동료지도자 16명, 트레이너 1명이 수료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부모-자녀와의 대화 기술을 증진하여 건강한 가정 성교육을 장려하고 안전한 성 건강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2006년 부터 실시되어 2009년 까지 3년 동안 진행이 되었고 2009년 4월에 프로젝트가 종료되었다.

3년의 프로젝트는 400명이 넘는 부모가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 광역토론토 지역에 약100,000명의 한인이민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참여자는 아주 미미한 숫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 성교육에 대한 인지도, 자녀와의 대화기술 향상으로 자신감이 높아졌다는 참가부모님들의 평가에 의하면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워크숍 참가부모님들과 동료부모지도자들이 계속적으로 자신의 가족, 친구, 이웃들과 대화를 통하여 성에 대한 이해증진과 각 가정 고유의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한다면 어린이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 커뮤니티에 넓게 확산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2008년 4월 - 2009년 3월		
내 용	시 간	참가 인원
동료지도자 훈련	20시간	16명
커뮤니티 부모 워크숍	50.5 시간 (12그룹)	122명

'손에 손잡고- 유방 건강 증진 프로젝트

캐나다 한인 여성회는 Canadian Breast Cancer foundation의 재정지원으로 동료 지도자 모델을 이용한 유방암 예방 워크숍, 조기발견을 위한 무료 이동 진료서비스, 환우와 환우를 돌보는 분들을 위한 환우 지원그룹 (핑크새순)등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손에 손잡고' -유방 건강 증진 프로젝트를 한인 사회의 네트워크 형성과 역량증진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손에 손잡고' - 유방 건강 증진 프로젝트의 3가지 프로그램과 현황을 좀더 상세히 살펴 보면, 첫째, 동료 지도자 (20시간의 훈련을 마친 자원 봉사자)를 양성하여 한인 여성의 건강을 위해 유방암 예방 워크숍을 22곳에서 58.5시간, 총278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한인 여성들의 건강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 증진시켜 앞으로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생각한다. 둘째, 온타리오 의료보험 (OHIP)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여성들과, 혹은 혜택 받기를 기다려야 하는 여성들을 위해 Immigrant Women' s Health Centre의 협조로 총 5회 4곳의 각기 다른 광역 토론토 지역에서 65명의 한인 여성에게 무료 이동 진료 서비스(유방 촉진검사, 자궁 경부암 검사)를 통역과 함께 제공함으로써 유방암 예방 워크숍에서 습득한 지식을 좀더 실천적인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보다 많은 한인 여성이 전문 의료진의 진단과 함께 적절한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셋째, 현재 캐나다에서 가장 잘 알려진 Well-Spring의 지원그룹 프로그램을 모델로 한국어로 진행되는 유방암 환우 지원 그룹(핑크새순)을 만들어, 4명의 동료 지도자와 함께 환우와 Care Giver들의 심리 지원을 도우며, 문화적, 심리적으로 편안한 만남을 가졌다. 또한 비슷한 상황의 여성들의 만남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정확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므로써 재발을 방지하고, 긍정적이며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내 용	날 짜	시 간	참가 인원
동료 지도자 훈련	2008년 9월 12- 26일	20시간 수료	15명
커뮤니티 워크숍	2008년 10월 - 2009년 6월 현재	58.5시간 (워크숍: 22번)	228명
이동 진료 서비스	2008년 10월 - 2009년 6월 현재	24 시간 (진료 서비스: 5번)	65명
환우 지원 그룹	2008년 6월 - 2009년 6월 현재	40시간 (만남: 39번)	135명

여성회에 도움 주신 분들

(2008 4월 1일 - 2009 3월 31일)

● 자원 봉사자

장미선, 김수희, 한윤진, 심형보, 김재민, 유민영, 정지윤, 박경애, 주은희, 김희정, 조 앨레나, 신지윤, 오 켈리, 수잔 강, 허진우, 박정민, 봉춘자, 박원희, 서은란, 김나영, 최미량, 전민희, 장예지, 정희윤, 이인숙, 권은정, 이혜미, 함승아, 이수진, 권명숙, 강보희, 이상은, 손지혜, 정지혜, 박상우, 장희옥, 강예원, 김 안젤라, 김덕화, 황진영, 정은아, 엄유니, 최 해밀턴, 박효정, 이규철, 이현주, 방지원, 배그레이스 그 외 다수

● 일반 기부자

정동환, 박규순, 장순자, 윤중희, IROQUOIS 고등학교, 김종환, 윤지숙, 티엔 찬, 조영숙, 김종, 임길순, 포웅 뉴엔, 원영범, 이성희, 권 크리스티나, 문귀남, 이긍옥, 백정옥, 강영옥, 신복실, 여성회 컴퓨터반, 김영애, 크리스틴 문, 지신원, 주판식, 이만형, 신춘자, 채상진, 선라이프 보험, 백은영, 김경희, 조영숙, 총영사관, 이상웅, 김지호, 이광순, 이정현, 전종원, 강경순, 여성회 뜨개질 교실반, 지춘자, 콴 라오, 신현영, 김혜원, 김순정, 윤승렬, 한국무역진흥공사, 장정숙, 한인실업인 협회, 박정민, 크레인 장미선, 본한인 장로교회, 이 스티븐, 김 크리티앙과 화랑, 해밀턴 한인회, 이칠영, 오 파울로, 신숙희, 이경복, 린다 신, 김 레이놀드, 그 외 다수

● 물품 기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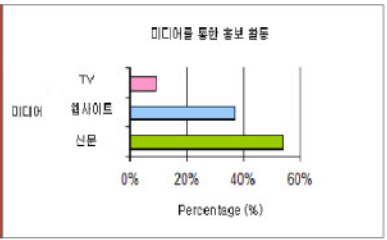
하영리, H-마트, TD은행, 영광장로 교회, 심수영, 엔절김밥, 박정민, 김재민, 류윤상, 김정숙, 최 해밀턴, 박상희, 그레이트 노스 스타 그룹, 장 데니엘, 메리 애디슨, 홍신득, 박 사이몬, 최성학, 박루시, 이 스티븐, 김 존과 자넷, 문관식, 박샤론, 정제인, 안주영, 안귀란, 페트로 캐나다, 송은주, 유상희, 김은애, 김명규, 이현선 그외 다수

● 고통분담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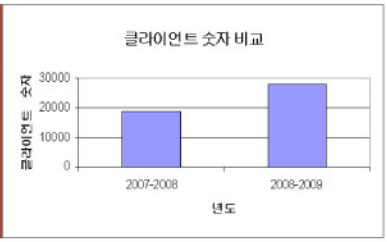
라이언 컴벨, 벧엘교회, 박춘일, 재숙 마틴, 1328833 Ontario Ltd., 이규희, 송희정, 손진숙

그래프 1

그래프 2



그래프 3



한인 여성회 홍보 활동

2008년 한인여성회의 홍보 활동은 한인 이민자들의 이용가능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접근 용이성' 를 높이기 위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홍보활동은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첫번째, 한인여성회의 전반적인 서비스 정보와 프로그램 안내가 한인 커뮤니티의 다양한 매체(신문, 웹사이트, TV) 를 통하여 전달되었고, 매달 서비스와 프로그램 일정표를 한인 이민자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전시광고를 하였고, 또한 유용한 정보을 기사화하여 커뮤니티 신문을 통하여 전달 하였다. 두번째로는,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와, 파트너쉽 도모를 통하여 서비스 이용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한인여성회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다운타운 토론토, 노스욕, 쏜힐, 리치몬드힐에 위치하고 있는 정부기관을 포함한, 사회복지 시설, 다른 정착기관에 소개하고 알렸다.

이러한 활발한 홍보 활동과 한인여성회 직원들의 친절하고 정확한 서비스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자 수가 작년에 비하여 50% 나 더 많이 늘어난 성과가 이루어진 것이 주목할 만 하다.

한편 홍보활동을 하면서 캐나다에서 서비스 이용시 언어 장벽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것이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들은 이민자로서 언어와 문화를 충분히 고려한 서비스를 여성회에서 받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를 표하였다.

재정감사 보고

수 입	2009	2008
정부 지원금	56,365	420,513
기금 모금 및 기부	90,362	82,239
회 비	3,100	2,760
프로그램 수입	5,920	9,389
이자 및 기타	1,509	564
합 계	**667,256**	**515,465**
정부 지원금 내역	**2009**	**2008**
Asian Community Aids Services	9,385	9,385
캐나다 유방암 재단	69,529	32,493
토론토 총영사관	-	5,164
온타리오 주정부 지역사회 복지부	102,541	109,760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부	94,944	101,320
온타리오 주정부 검찰청	8,325	47,175
토론토시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25,500	25,000
토론토시 (공중보건)	500	-
연방이민성	251,421	90,216
재외동포 재단	4,220	-
합 계	**566,365**	**420,513**

지 출	2009	2008
홍보	8,056	4,105
은행 수수료	593	481
커뮤니케이션	3,910	4,253
커뮤니티 지원	1,600	3,846
통역비	1,831	7,035
모금 활동	38,832	26,324
보험	4,033	3,958
모임	2,359	1,430
렌트	27,774	28,216
전문인 사례	8,156	19,990
프로젝트 파트너	13,211	12,408
급 여	430,564	271,170
사무실 경비	12,910	15,156
교육 프로그램	25,412	19,920
합 계	**579,241**	**418,292**

Ontario
The Ontario Trillium Foundation / La Fondation Trillium de l'Ontario
Canadian Breast Cancer Foundation / Fondation canadienne du cancer du sein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TD Bank Financial Group
Toronto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toyenneté et Immigration Canada